

민원 요지

민원인들은 강릉시 강동면 ○○리 ○○○와 ○○리 ○○○입니다.

민원인들의 마을은 강동면 안인리 군선강 하천 하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선교 북단에서 남동발전 정문에 이르는 도로 일부 구간과 우측 하천부지 대부분이 공유지로 국가 소유이고 일부는 개인 소유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땅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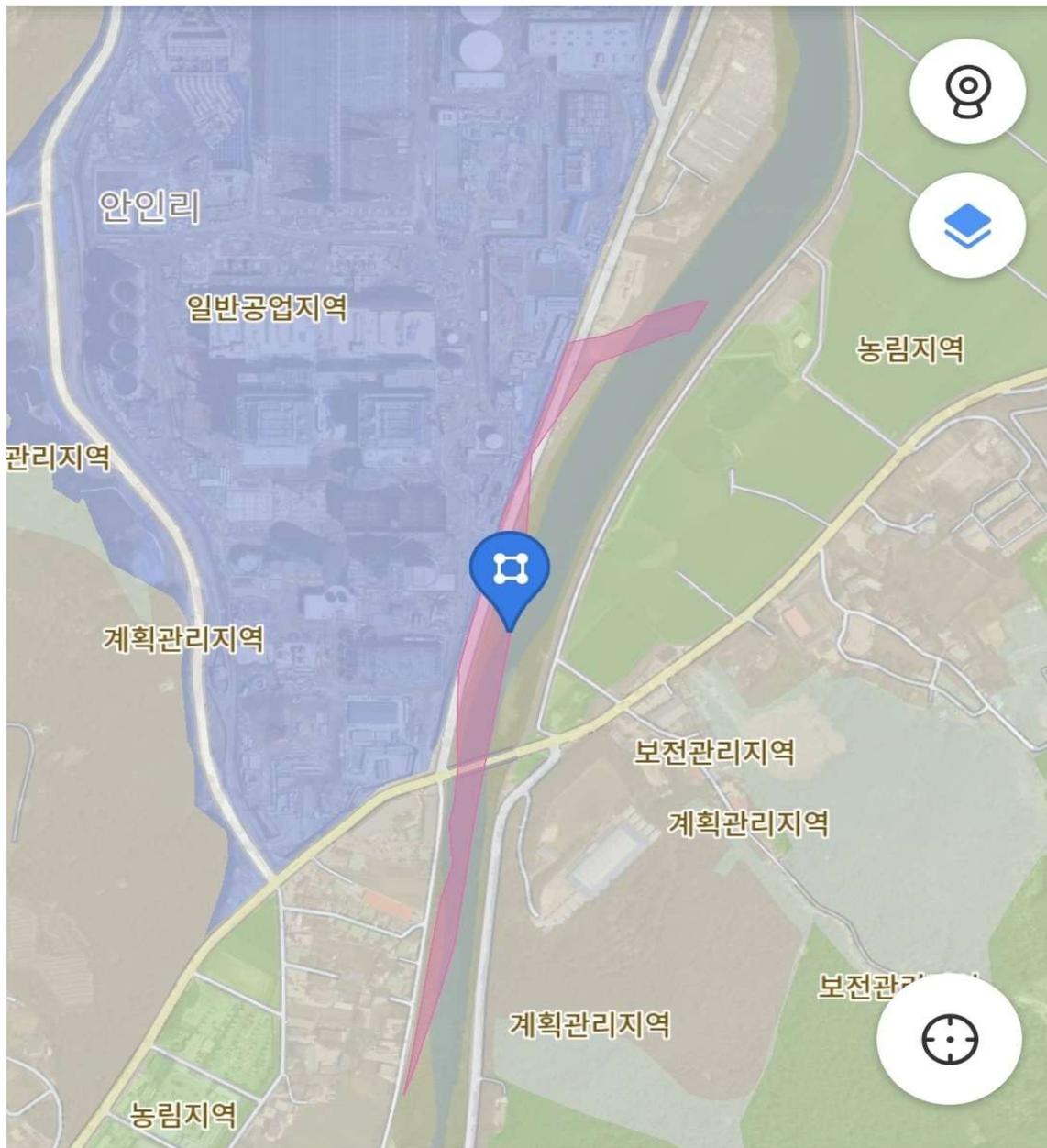
이곳 하천 부지 대부분은 하천관리청 또는 지자체 행정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에 걸쳐 단 한차례도 이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보니 통상적 또는 일반 상식에 기반하여도 개인이 점용허가를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하천 부지가 어느 특정인에게 점용 허가되었고 또 그렇게 점용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는 농토로 다시 전대하는 등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곳 하천 부지 일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점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그 점용허가 신청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정관청을 속여왔는지 등 모든 자료를 파악하여 민원인들에게 통보하여 주시면 민원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진과 같이 강동면 안인리 790-8번지(약 1만평)는 군선강

하천 내와 일반 도로 부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번지가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특정인에게 점용허가 승인이 날 수 있었는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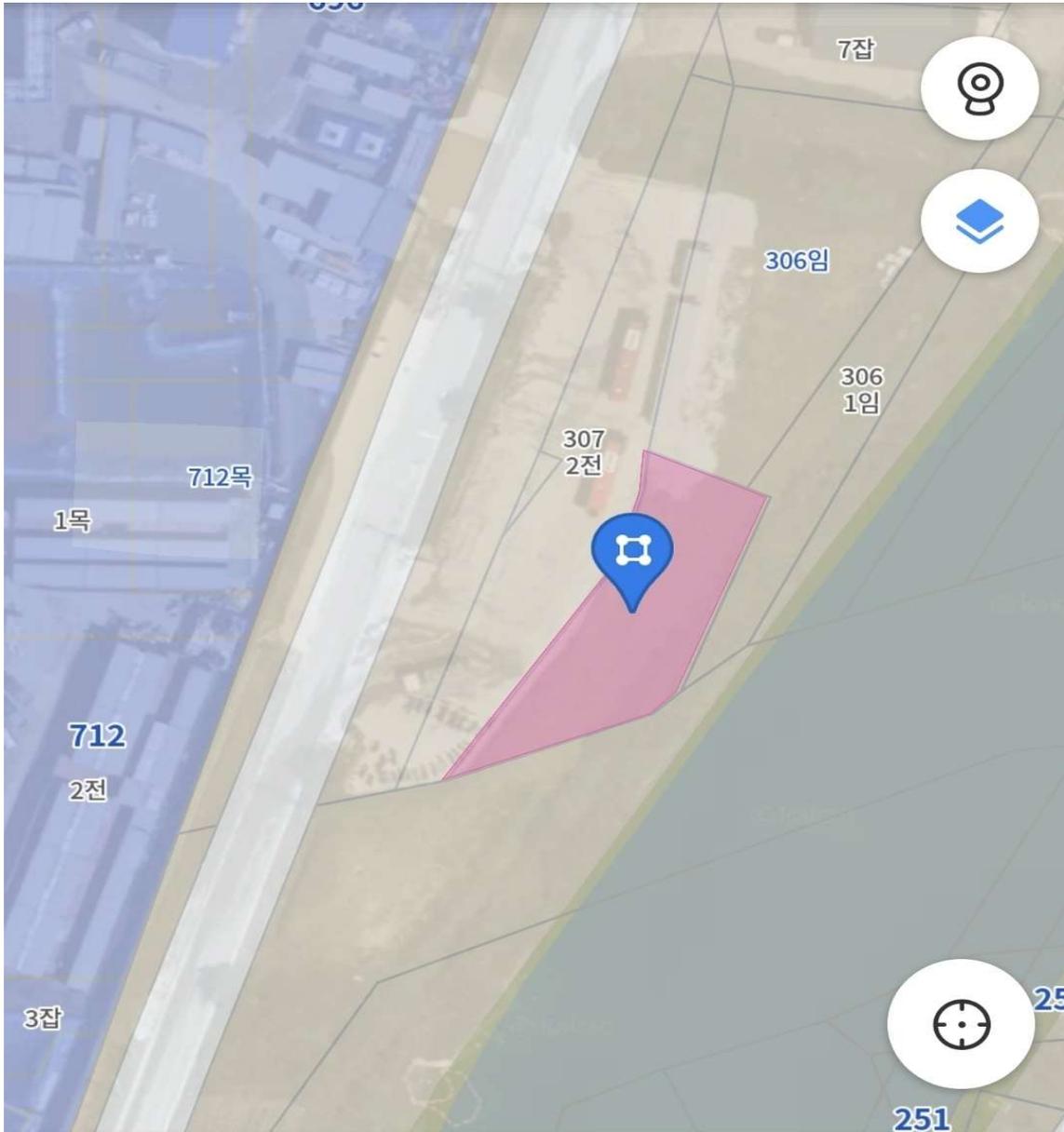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90-8



아래 사진 : 안인리 517번지 209평은 일본인 명의로 소유자가 불분명

하여 현재까지 미등기된 땅인데 아무나가 임의대로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현재 배추 작용하고 있으며 농약과 물을 살포하는 스프링클러 시설까지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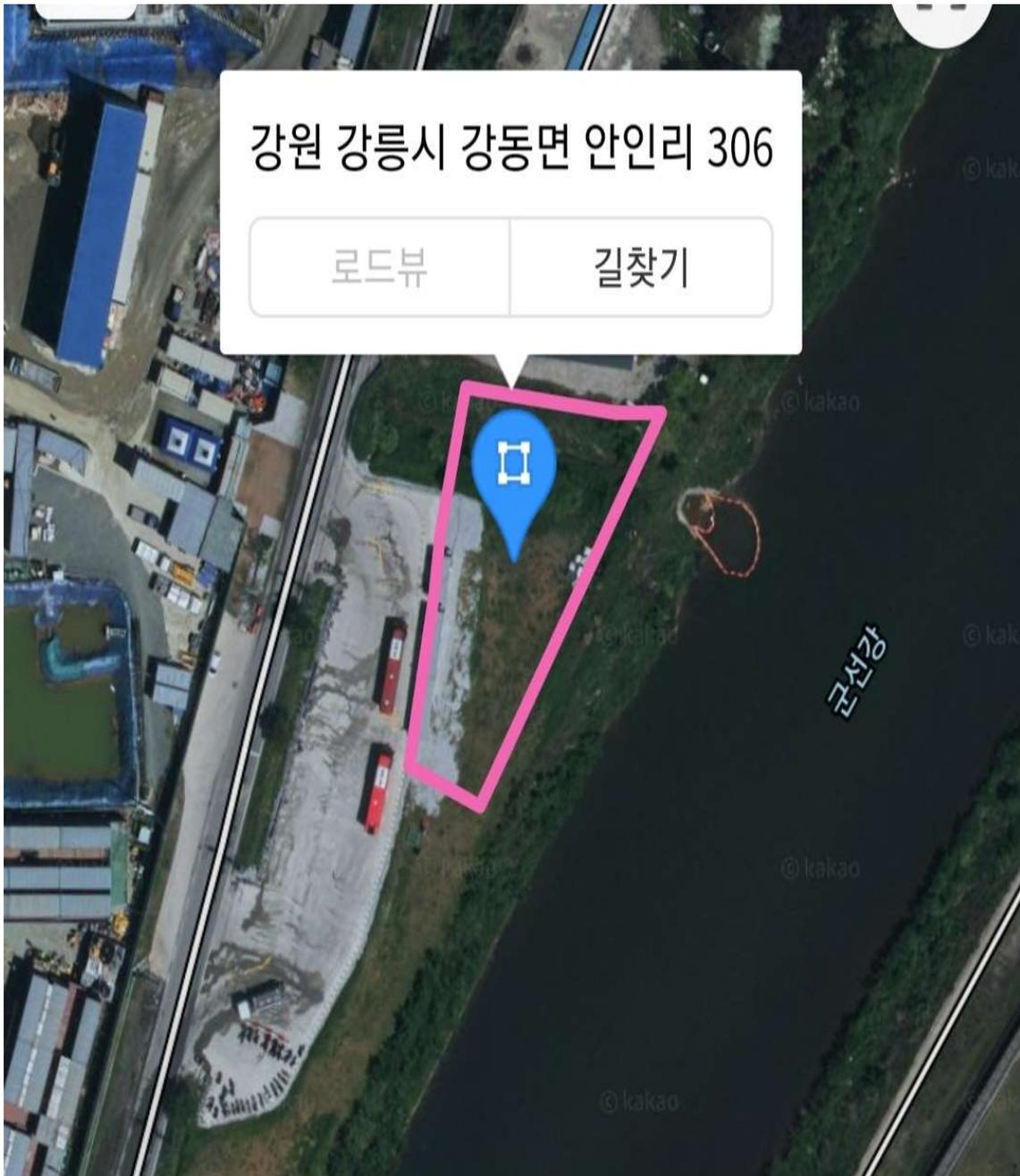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517



아래 사진 : 안인리 306번지 395평은 국토교통부 소유 땅으로 지난 해

까지는 이곳 땅 일부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었으며(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됨) 현재는 안인리 790-8번지와 517번지 그리고 306번지가 모두 어느 특정인이 배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위 3개 번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